

# 朱熹의 『詩經』 注解書 비교 연구

— 『詩集傳』, 『詩序辨說』, 『朱子語類』, 『詩傳遺說』을 중심으로 —

楊 沅 錫\*

<目次>

I. 序論	III. 詩經論 各論에 대한 해설 양상
II. 朱熹 『詩經』 注解書 概況	IV. 結論

## <국문 초록>

본고는 朱熹의 『詩經』 注解書 4種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각 책의 특징과 성격을 밝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주희가 직접 저술한 『詩集傳』과 『詩序辨說』, 주희와 그의 門人들간의 問答 기록인 『朱子語類』의 『시경』 관련 부분, 주희의 손자 朱鑑이 편찬한 『詩傳遺說』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각 책의 편찬 시기, 저술 취지, 내용 구성 등의 概況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詩經論 各論에 대한 해설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책의 특징과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詩集傳』은 주희의 『시경』 주해서의 대표적인 것으로, 漢·唐 舊說을 비롯하여 특히 宋朝 諸家の 說을 두루 수용하여 宋學 『시경』 연구의 집대성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시경론 관련 논술을 직접 제시하기 보다는, 각 詩篇에 대한 주석과 해설의 방식으로 시편의 내용 풀이에 주력하면서 주희의 詩經觀을 제시하였다.

『詩序辨說』은 책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로 詩序의 문제점을 논박하

\* 고려대학교 BK21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 연구교수 / yang1st@korea.ac.kr

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大序를 비롯하여 각 시편에 해당하는 小序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변론을 펼치고 있으며, 詩序와 관련된 주희의 견해가 집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朱子語類』의 권80, 권81, 권23에는 각 시편에 대한 해설 뿐 아니라, 美刺說 부정, 大序의 ‘變風止乎禮義’에 대한 부정, 詩序子夏所作說 부정, 讀詩者の ‘思無邪’ 주장, 反詩序說, 淫詩說 등 주희 시경론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다양하고 상세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특히 주희 시경론의 晚年 定論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詩傳遺說』은 『晦庵集』과 『朱子語類』 등에 보이는 주희 시경론 관련 자료를 발췌하여 수록한 것으로, 『시집전』에 누락된 주희 시경론의 내용을 집성함으로써 『시집전』의 내용을 보충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朱熹, 『詩經』, 『詩集傳』, 『詩序辨說』, 『朱子語類』, 『詩傳遺說』

## I. 序論

周知하다시피 『詩經』은 西周初期(B.C 1,100년 무렵)부터 春秋中期(B.C 600년 무렵)에 이르기까지 약 500여 년 동안 중국의 黃河 중류 中原 지방에서 노래되었던 詩歌를 모은 것으로, 중국 最古의 詩歌集이자 또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漢字文化圈 문학 작품의 鼻祖라고 할 수 있다.

『시경』 성립 이후 이에 대한 연구는 2,00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저작으로는 『毛詩』를 기본으로 하여 三家詩를 채용한 漢 鄭玄의 『毛詩鄭箋』, 漢學 각파의 통일을 완성한 唐 孔穎達의 『毛詩正義』, 宋學 『시경』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宋 朱熹의 『詩集傳』이 있다. 이것은 詩經學史에서 분기를 이루는 저작으로, 詩經研究史의 3대 이정표라고 칭해지기도 한다.<sup>1)</sup>

1) 夏傳才, 『詩經研究史概要(增注本)』,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007, pp.11-12.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詩集傳』으로 대표되는 주희의 시경학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주희 시경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注解書로는 『시집전』을 비롯하여, 詩序에 대한 朱熹의 견해를 모아 놓은 『詩序辨說』, 주희와 그의 門人들간의 問答 기록인 『朱子語類』의 『시경』 관련 부분, 주희의 손자 朱鑑이 편찬한 『詩傳遺說』 등이 있다. 주희 시경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면 이상의 ‘朱熹 『詩經』 注解書’<sup>2)</sup> 및 주희 문집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주해서의 특징과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론에서는 이상의 주희 『시경』 주해서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각 주해서의 특징과 성격을 파악하고 또한 주희 시경론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하겠다. 이를 위해, 이상 주해서의 편찬 시기, 저술 취지, 내용 구성 등의 概況에 대해서 정리하고, 아울러 시경론 각론에 대한 각 주해서의 해설 양상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 II. 朱熹 『詩經』 注解書 概況

### 1. 『詩集傳』

주희의 『시경』 저작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詩集傳』이다. 이 책은 주희의 詩序에 대한 觀點 변화에 따라 세 차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亡佚되어 전해지지 않는 初稿本과 二稿本, 그리고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시집전』이다. 현행 『시집전』은 주희 48세(丁酉年, 1177년)에 舊說을

2) 본고에서는 주희가 직접 저술한 『詩集傳』과 『詩序辨說』 및 주희가 직접 저술한 것은 아니지만 주희의 門人 및 후손이 지은 『朱子語類』와 『詩傳遺說』, 이상 4종을 ‘朱熹의 『詩經』 注解書’라고 칭하겠다. 이것들을 ‘주희의 『시경』 주해서’로 통칭하는 것은 각 책의 저자와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무리가 있지만, 주희 시경학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자료라는 공통점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칭하도록 하겠다.

수정하기 시작하였으며, 49세(戊戌年, 1178년)에 저술을 시작하여, 58세(丁未年, 1187년)에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20권으로 되어 있었으며 卷首에는 「綱領」이 있었고 뒷부분에는 「詩序辨說」 1권이 부록으로 있었다. 하지만 明의 監本과 坊刻本에서 20권을 병합하여 8권으로 재편하였으며,<sup>3)</sup> 또 「綱領」과 「詩序辨說」을 떼어내어 수록하지 않았고,<sup>4)</sup> 丁酉年(1177년)에 지은 「詩集傳序」를 책 앞에 실어두었다.<sup>5)</sup>

『시집전』이 완성된 이후인 주희 59-60세의 기록 『朱子語類』 권80 71조<sup>6)</sup>에 따르면, 初稿本은 詩序說에 근거한 것이고, 二稿本은 詩序說을 따르되 종종 詩序說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며, 現행本은 反詩序의 입장에서 저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王懋孳의 『朱熹年譜』에서 “先生의 손자 朱鑑의 『詩傳遺說』注에 이르기를, 「詩傳舊序」는 丁酉年에 先生이 小序로써 『시경』을 해석할 때 지은 것이며, 나중에는 小序를 모두 버렸다.”<sup>7)</sup>라고 하여, 丁酉年에 작성한 「詩集傳序」는 주희의 시경관이 완전히 확립되기 이전의 舊序이며 나중에는 小序를 배척하는 입장이었음을 밝

- 3) 이상은 李再薰, 「朱子 詩經學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1994. pp.18-25.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 4) 丁晏, 『詩集傳附釋』, “詩集傳, … 舊有詩序辨說附於後, 今亦刪之.” (劉毓慶, 『歷代詩經著述考』, 北京: 中華書局, 2002. p.203에서 재인용.)
- 5) 現행本 『詩集傳』 서문 끝부분에 “淳熙四年丁酉冬十月戊子, 新安朱熹書.”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시집전』이 丁酉年(1177년)에 편찬된 것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 6) 『朱子語類』 卷80 71조, “某向作詩解文字, 初用小序, 至解不行處, 亦曲爲之說. 後來覺得不安, 第二次解者, 雖存小序, 間爲辨破, 然終是不見詩人本意. 後來方知, 只盡去小序, 便自可通. 於是盡滌舊說, 詩意方活.(내가 예전에 『시경』을 해설하는 글에서 처음에는 小序에 근거하였는데 해석이 마땅치 않은 곳이 있어 억지로 해석을 하게 되었다. 나중에 타당치 않음을 깨닫고 두 번째 해설에서는 비록 小序에 근거하였지만 간혹 이것의 오류를 지적하였는데 여전히 시인의 본 뜻을 얻을 수 없었다. 나중에 小序를 모두 버려야만 시의 뜻이 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舊說을 모두 씻어버리자 시의 뜻이 살아났다.)”
- 7) 王懋孳, 『朱熹年譜』, “先生孫鑑詩傳遺說注云, 詩傳舊序, 此乃先生丁酉歲用小序解經時所作, 後乃盡去小序.”

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sup>8)</sup>

『시집전』은 각 시편에 대한 주희의 주석과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詩句에 대한 훈고를 비롯하여 각 시편의 篇旨에 대한 설명이 담겨져 있다. 주희는 경전 해석에 있어서 義理와 訓詁를 동시에 중시하였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sup>9)</sup> 『시경』 해석에서도 먼저 詩句에 대한 훈고를 진행한 후에 각 시편의 뜻을 찾고자 하였다.

『시집전』에서 볼 수 있는 주희 注解의 가장 큰 특징은 諸家の 說을 두루 수용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집전』은 宋學 『시경』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10)</sup> 耿紀平은 宋의 王應麟, 淸의 丁晏, 元의 郝經 등이 이미 이와 같이 평가하였다고 하면서, 실제로 『시집전』에서 인용하여 제시된 宋朝 학자의 이름과 조목을 고증하여 밝혔다.<sup>11)</sup> 이 결과에 따르면, 주희는 『시집전』에서 宋朝 학자 21명<sup>12)</sup>의 214

8) 王懋蟾의 『朱熹年譜』에서는 “(淳熙)四年丁酉, 四十八歲, 詩集傳成.”이라고 하여 『시집전』이 淳熙4年(1177년)에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며, 또 주석으로 이상과 같이 『詩傳遺說』을 인용하여 1177년의 「詩集傳序」는 舊序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詩集傳序」가 丁酉年(1177)에 지어진 것에 근거하여 “丁酉, 詩集傳成.”이라고 하고서, 다시 고증하여 『시집전』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9) 李曉東은 宋明理學을 ‘純義理派’, ‘象數派’, ‘重訓詁的義理派’, ‘心學派’로 분류하고 있는데, ‘重訓詁的義理派’의 대표적 학자로 朱熹를 들고 있다. (李曉東, 『經學與宋明理學』, 『中國經學史論文選集·下』, 臺北: 文史哲出版社, 1992, pp.10-12.)

10) 黃忠愼은 주희 시경학에 대한 前人 및 今人の 평가를 소개하였는데, 여기에는 주희가 宋學 『시경』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였다는 諸家の 評이 다수 보인다.(黃忠愼, 『南宋三家詩經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8. pp.246-264.) 또한 羅英俠은 주희 『시집전』의 訓釋이 가지는 특징으로 前代 各家의 설을 수용하면서 또한 宋代 『시경』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흡수하였다고 평가하였다.(羅英俠, 『集大成: 朱熹詩集傳的訓釋特色』, 『中州學刊』 2007年第4期(總第160期), 2007. pp.243-245.) 夏傳才는 漢學에 대한 宋學의 비판 및 宋學의 고증학 흥기의 기초 위에서 宋學의 『시경』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것이 주희의 『시집전』이라고 평가하였다.(夏傳才, 『詩經研究史概要(增注本)』,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007, p.114.)

조목을 인용하면서 注解를 하였으며, 또한 宋 이전의 漢唐 舊說도 상당히 많이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시집전』은 漢唐 舊說 및 宋學의 『시경』 해석을 두루 수용하면서 주희의 시경관을 드러낸 저작이라고 하겠다.

## 2. 『詩序辨說』

『詩序辨說』은 朱熹가 『詩經』 각 편의 詩序를 經으로부터 분리하고 다시 하나로 병합하여 원래의 형태로 환원시키고 동시에 그 설의 得失을 변석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8권본 『시집전』이 만들어지면서 『시서변설』은 독립된 책이 되었다.

편찬 시기를 살펴보면, 『朱子語類』 권80 34조의 “지금 『시집전』을 지어 시를 앞에 배열해 놓고 나서 (詩序는) 뒤로 몰아 따로 한 곳에 있게 하였다.”<sup>13)</sup>라는 기록, 그리고 『시서변설』에서 종종 “說見本篇”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本篇이 『시집전』을 가리킨다는 점 등을 통해, 『시서변설』은 『시집전』이 작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sup>14)</sup> 위의 『주자어류』 권80 34조의 내용은 주희 59세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58세(1187년)에 작성된 『시집전』에 비해 『시서변설』이 조금 늦게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시서변설』의 저술 취지는 다음에 제시된 序文에 잘 드러나 있다.

- 
- 11) 耿紀平, 「朱熹詩集傳徵引宋人詩說考論」, 『第六屆詩經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中國詩經學會, 2004. pp.420-432.
- 12) 耿紀平이 밝힌 『시집전』에 인용된 宋朝 학자 21명은 다음과 같다: 歐陽脩, 劉敞, 劉彝, 王安石, 張載, 蘇轍, 程頤, 呂大臨, 範祖禹, 劉安歲, 曾旼, 楊時, 胡安國, 董道, 鄭樵, 吳棫, 李樛, 陳傅良, 張栻, 呂祖謙, 名號 未詳의 聞人氏 (耿紀平, 앞의 논문, pp.421-428.)
- 13) 『朱子語類』 卷80 34條, “見作詩集傳, 待取詩令編排放前面, 驅逐過後面, 自作一處”
- 14) 李再薰, 앞의 논문, pp.45-49.

詩序의 작자에 대한 설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孔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子夏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國史라고 하지만 모두 고찰할 수 있는 분명한 문헌이 없다. 오직 『後漢書』 「儒林傳」에서 衛宏이 毛詩序를 지어 지금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고 하였으니, 詩序는 衛宏이 지은 것이 틀림없다. … 그러므로 이 詩序는 마침내 시인이 먼저 제목을 정한 것처럼 되었고, 詩文은 도리어 詩序로 인하여 지어진 것처럼 되었다. 이에 독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믿어 감히 의론하지 못하고, 통하지 않는 바가 있게 되면 반드시 이리저리 맞추고 穿鑿附會하게 되었다. 經의 본문이 비틀어지고 어긋나며 깨지고 조각이 나서 文理를 이루지 못할지언정 끝내 小序가 漢儒로부터 나왔음을 차마 밝히지 못하였다. 나는 오랫동안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여겼지만, 詩序가 만들어진 것이 오래되었고 그 중에는 간혹 정말로 證驗이 전수되어 폐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못 그것을 취하여 『詩集傳』 중에 넣고 다시 한 편으로 병합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환원시키고 그 得失을 논하였다.<sup>15)</sup>

여기서 주희는 『시서변설』을 작성하게 된 취지는 詩序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詩序를 經文에서 분리시켜 원래의 모습인 별도의 기록으로 모으는 것이며, 또한 詩序의 得失을 논하고 그것의 오류를 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詩의 義理를 해치며<sup>16)</sup> 聖經의 본뜻을 어지럽히는<sup>17)</sup> 詩序의 폐해를 막고자 하였다.

15) 『詩序辨說』 「序文」, “詩序之作說者, 不同. 或以爲孔子, 或以爲子夏, 或以爲國史, 皆無明文可考. 唯後漢書儒林傳以爲衛宏作毛詩序, 今傳於世, 則序乃宏作明矣. … 故此序者, 遂若詩人先所命題, 而詩文反爲因序以作. 於是, 讀者轉相尊信, 無敢擬議, 至於有所不通, 則必爲之委曲遷就, 穿鑿而附會之. 寧使經之本文繚戾破碎, 不成文理, 而終不忍明以小序爲出於漢儒也. 愚之病此久矣, 然猶以其所從來也遠, 其間容或直有傳授證驗而不可廢者, 故既頗采以附傳中, 而復并爲一編以還其舊, 因以論其得失云.”

16) 『詩序辨說』 「鄭風狡童」, “大抵, 序者之於鄭詩, 凡不得其說者, 則舉而歸之於忽. 文義一失, 而其害於義理, 有不可勝言者. … 凡此皆非小失, 而後之說者, 猶或主之. 其論愈精, 其害愈甚, 學者不可以不察也.(詩序가 鄭風의 시에 대해 그 마땅한 해설을 하지 못하니, 시편의 내용과 상관없이 들어서忽에게 돌리고 있다. 시문의 뜻을 한 번 잃으면 그것이 義理에 해를 입히는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 이러한 詩序의 오류는 작은 실수가 아니어서, 뒤의

여기에서 주희는 詩序說 부정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였음을 볼 수 있다.

『시서변설』의 첫 부분은 『毛詩』의 大序를 수록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說見綱領’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이어 「小序」라는 제목 하에, 「關雎」편부터 각 시편의 小序를 수록하고 이에 대한 辨證을 진행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시편에 대한 小序의 해석에 異見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小序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小序의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또한 『시서변설』에서는 大序와 小序의 구분에 대한 주희의 견해를 볼 수 있다. 『모시』에서는 「관저」편 앞에 “關雎, 后妃之德也. ~ 是關雎之義也.”<sup>18)</sup>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六朝時代 학자들은 “關雎, 后妃之德

해설하는 자가 오히려 그것을 주로 삼을 수도 있다. 시서의 논의가 더욱 정밀할수록 그것의 폐해는 더욱 심하니, 학자들은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17) 『詩序辨說』 「鄭風有女同車」, “後之讀者, 又襲其誤, 必欲鍛鍊羅織, 文致其罪, 而不肯赦. 徒欲以徇說詩者之繆, 而不知其失是非之正, 害義理之公. 以亂聖經之本指, 而壞學者之心術, 故予不可以不辨.(뒤의 독자들은 또한 詩序의 오류를 답습하여 詩序의 주장을 반드시 단단하게 잘 짜여지도록 하여 문장에 죄를 입게 하는데 이르게 하면서도 그것을 사면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시를 해석한 詩序의 오류를 따르면서, 그것이 是非의 바름을 잃고 의리의 공변됨을 헤치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여 聖經의 본뜻을 어지럽히고 학자의 心術을 무너뜨리고 있으니, 내가 辨說하지 않을 수 없다.)”

18) 全文은 다음과 같다: “關雎, 后妃之德也. 風之始也, 所以風天下而正夫婦也. 故用之鄉人焉, 用之邦國焉. 風, 風也教也, 風以動之, 教以化之. 詩者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言爲詩. 情動於中而形於言, 言之不足, 故嗟歎之, 嗟歎之不足, 故永歌之, 永歌之不足, 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也. 情發於聲, 聲成文, 謂之音. 治世之音, 安以樂, 其政和, 亂世之音, 怨以怒, 其政乖, 亡國之音, 哀以思, 其民困. 故正得失動天地感鬼神, 莫近於詩. 先王, 以是經夫婦, 成孝敬, 厚人倫, 美教化, 移風俗. 故詩有六義焉, 一曰風, 二曰賦, 三曰比, 四曰興, 五曰雅, 六曰頌. 上以風化下, 下以風刺上, 主文而譎諫, 言之者無罪, 聞之者足以戒. 故曰風. 至于王道衰, 禮義廢政教失, 國異政, 家殊俗, 而變風變雅作矣. 國史明乎得失之迹, 傷人倫之廢, 哀刑政之苛, 吟詠情性, 以風其上. 達於事變而懷其舊俗者也. 故變風, 發乎情, 止乎禮義, 發乎情, 民之性也, 止乎禮義, 先王之澤也. 是以, 一國之事繫一人之本, 謂之風. 言天下之事, 形四方之風, 謂之雅. 雅者,

也. 風之始也, 所以風天下而正夫婦也. 故用之鄉人焉, 用之邦國焉.”을 「관저」의 小序로, “風, 風也教也, 風以動之, 教以化之.”부터 끝까지(～是關雎之義也.)를 大序라고 보았다. 또 唐의 陸德明은 이러한 大序와 小序의 구분에 대해 반대하기도 하였다.<sup>19)</sup> 하지만 주희는 『시서변설』에서 「大序」라는 제목 하에 “詩者志之所之也, ～ 是謂四始, 詩之至也.”를 수록하였고, 「小序」라는 제목 하에 「관저」에 해당하는 것으로 “關雎, 后妃之德也. 風之始也, 所以風天下而正夫婦也. 故用之鄉人焉, 用之邦國焉. 風, 風也教也, 風以動之, 教以化之.”와 “然則關雎麟趾之化, 王者之風, ～ 是關雎之義也.”를 제시하면서 大序와 小序의 구분을 분명히 하였다. 大序와 小序의 구분에 대해서는 역대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지만, 주희의 이상과 같은 大序와 小序의 구분은 『시서변설』에서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

### 3. 『朱子語類』

『朱子語類』는 주희와 그의 門人間에 주고받았던 問答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편찬한 것으로, 주희의 文集이나 經書 注解書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 주희의 사상과 학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통행되는 『주자어류』는 1270년에 黎靖德이 편집하여 출판한 것이다. 여정덕은 李道傳이 편집한 池州刊 『朱子語錄』(1215년), 李性傳이 편집한 饒州刊 『朱子語實錄』(1238년) 등 당시에 유통되었던 여러 판본의 주희 語錄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1263년(南宋 理宗 景定 4년)에 景定本 『주자어류』를 출판하였다. 이어 1265년에 吳堅이 편집한 建州刊 『朱子

正也, 言王政之所由廢興也. 政有小大, 故有小雅焉, 有大雅焉. 頌者, 美盛德之形容, 以其成功告於神明者也. 是謂四始, 詩之至也. 然則關雎麟趾之化, 王者之風. 故繫之周公. 南, 言化自北而南也. 鵲巢騶虞之德, 諸侯之風也, 先王之所以教. 故繫之召公. 周南召南, 正始之道, 王化之基. 是以, 關雎, 樂得淑女以配君子, 愛在進賢, 不淫其色, 哀窈窕, 思賢才, 而無傷善之心焉, 是關雎之義也.”

19) 李再薰, 앞의 논문, pp.152-153.

『語別錄』에 있는 새로운 條目을 景定本에 편입시켜 1270년에 『주자어류』를 발간하였는데, 이것이 現행본 『주자어류』의 초판에 해당한다.<sup>20)</sup>

『주자어류』에는 주희의 門人 97명이 기록한 주희의 語錄이 수록되어 있다. 여정덕은 『주자어류』를 편집할 때 각 개인이 기록한 어록의 年代를 모두 보존해 두었는데,<sup>21)</sup> 이것은 1170년(南宋 孝宗 乾道 6년)부터 시작하여 1199년(南宋 寧宗 慶元 5년)까지의 약 30년 동안, 즉 주희 나이 41세부터 70세까지에 해당한다. 또한 이 97명 중에서 주희 60세 이후의 어록을 기록한 사람이 64인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주자어류』에는 주희의 晩年 定論이 상세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이처럼 『주자어류』에서 볼 수 있는 주희의 晩年 定論은 그의 早期 저작 중에 제시된 의견을 수정할 수 있으며, 또 『주자어류』에서 언급된 내용이 주희의 문집 중에 없거나 서술이 간략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것을 보충해 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시경론의 경우에도 『시집전』이나 『시서변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주희 晩年の 『시경』에 대한 견해를 『주자어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자어류』는 총 14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四書五經을 비롯하여, 諸子書, 철학 論辯, 巨儒들의 문집, 역사와 문학 등 주희의 학문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조목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시경』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권80과 권81의 「詩」를 비롯하여, 권23의 『논어』 「詩三百章」에서 ‘思無邪’에 대한 견해를 밝힌 부분 등이 있다.

20) 鄭艾民, 「朱熹與朱子語類」(黎靖德 編, 『朱子語類』, 北京: 中華書局, 1986.) p.7

21) 『朱子語類』 中華書局本에는 「朱子語錄姓氏」를 수록하여 각 門人이 주희에게서 수업 받은 연도를 표기해 두었다. 또 『주자어류』의 각 조목에는 주희와 문답을 주고받은 門人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근거로 하여 『주자어류』 각 조목의 연도를 추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주자어류』 기록의 해당 연도를 언급한 것은 이러한 방법에 근거한 것이다.

22) 鄭艾民, 앞의 글, p.8.

## 4. 『詩傳遺說』

『詩傳遺說』은 주희의嫡長孫인 朱鑑<sup>23)</sup>이 1235년(南宋 理宗 端平 2년)에 주희의文集 및 語錄 등에서 『시경』에 관하여 논한 것 중에서 『시집전』에 수록되지 않은 것들을 모아서 6권으로 편찬한 것이다.<sup>24)</sup>

『시전유설』의 저술 취지는 다음의 朱鑑이 직접 쓴 「自序」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先文公의 『詩集傳』은 豫章·長沙·後山에 모두 판본이 있는데 後山本의 교열이 가장 정밀하다. 처음 탈고할 때에 音·訓에 미비한 곳이 있었지만, 刻版이 이미 완료되어 더할 수가 없었고, 補說을 쓰고자 하였으나 마침내는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여전히 舊版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全書가 되었다. … 내가 옛날에 곁에서 모시고 있을 적에, 매년 학자들이 이 책에 대해 서로 더불어 講論하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라도 의심나는 글자가 있거나 하나라도 숨겨진 뜻이 있을 때마다 반복하여 묻고 답하며 치밀히 연구하여 반드시 마음으로 통하고 뜻이 풀려진 이후에야 그만 두었다. 지금 文集의 書問·語錄에 기재된 것이 무려 수십 백 조인데, 차례대로 모아 엮어서 ‘遺說’이라 이름하였다.<sup>25)</sup>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어려서부터 주희의 곁에서 『시집전』의 내용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논의하는 모습을 보았던 주감은 주희의 文集과 語錄에 기록된 『시경』 관련 기록을 주제별로 차례대로 모아서 책을 엮고 그 이름을 ‘遺說’이라고 하였다. 이는 『시집전』이 이미 판각되어 배포된

23) 朱鑑 : 字 子明. 南宋 徽州 婺源人. 『詩傳遺說』 6권 및 『朱文公易說』 23권을 지었음.

24) 李再薰, 앞의 논문, pp.50-51.

25) 朱鑑, 『詩傳遺說』 「自序」, “先文公詩集傳, 豫章長沙後山皆有本, 而後山本驢校爲最精, 第初脫藁時, 音訓間有未備, 刻版已竟, 不容增益, 欲著補說, 終弗克就. 未免仍用舊版, 葺爲全書. … 抑鑑昔在侍旁, 每見學者相與講論是書, 凡一字之疑, 一義之隱, 反復問答, 切磋研究, 必令心通意解而後已. 今文集書問語錄所記載, 無慮數十百條, 彙次成編, 題曰遺說.”

이후에 보충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일종의 후속 작업인 셈이다.

『시전유설』은 총 6권으로, 각 권은 卷1「綱領」, 卷2「序辨」, 卷3「六義」, 卷4「國風」, 卷5「雅」, 卷6「頌」·「逸詩」·「詩樂」·「叶韻」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술된 각 내용에는 小注로 기록한 사람과 출처를 밝히고 있어, 주희 언술의 來源을 확인할 수 있다.

『시전유설』은 주희가 『시경』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두루 모아 편집한 것으로 『시집전』을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sup>26)</sup> 주희의 시경학을 연구하는 데에 반드시 참고해야할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sup>27)</sup>

### Ⅲ. 詩經論 各論에 대한 해설 양상

『毛詩鄭箋』과 『毛詩正義』로 대표되는 漢·唐의 『시경』 해석과 달리, 주희는 宋學의 『시경』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면서 『시경』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주희의 시경론 중 핵심적인 것으로는 ‘詩序에 대한 부정’ 및 ‘淫詩說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美刺說 부정, 毛詩 大序의 ‘變風止乎禮義’에 대한 부정, 詩序子夏所作說 부정, ‘思無邪’를 作詩者의 경우가 아닌 讀詩者의 경우로 이해한 점 등이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주장들은 反詩序說 및 淫詩說과 상호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美刺說’이란 『모시정전』에서 『시경』 시편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관점으로, 모든 시편이 정치 풍자와 찬미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變風이 모두 禮義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變風止乎禮義’], 子夏와 같은 성인이 詩序를 지었기 때문에 음탕한 내용이 『시경』에 담길 수 없다

26) 紀昀 總纂, 『四庫全書總目提要』 “蓋因重槩朱子集傳, 而取文集語錄所載論詩之語, 足與集傳相發明者, 彙而編之 故曰遺說. … 以朱子之說, 明朱子未竟之義.”

27) 夏傳才·董治安 主編, 『詩經要籍提要』, 北京: 學苑出版社, 2003, pp.106-109.

는 견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詩序의 작자에 대한 의견도 역대로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어 왔다. 漢·唐 시경학에서는 詩序의 작자를 子夏 또는 孔子로 보아 그 권위성을 부여하였지만, 주희는 大序의 작자를 알 수 없다고 하였고 小序는 衛宏 등 漢代의 여러 사람이 지은 것이라고 보면서 詩序의 신빙성을 부정하였다.

『毛詩』 「大序」에서는 ‘變風止乎禮義’<sup>28)</sup>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變風의 시편들 중에 인간의 情에서 나온 것이 있지만[發乎情] 모두 禮義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는[止乎禮義]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시경』에는 민간가요와 같이 인간의 진솔한 감정을 담은 노래는 있을 수 없으며, 모두 정치교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주희는 『시경』에는 당시의 정치·사회 현상을 노래한 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읊은 詩도 있으며, 이에 따라 『시경』의 시편이 모두 禮義의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주희는 ‘變風止乎禮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민간에서 불려졌던 民俗歌謠詩인 國風 그 중에서도 變風의 시편 중에는 禮義의 규범에서 일탈한 남녀간의 애정을 읊은 淫亂한 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주희는 詩序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詩序說에 反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反詩序說이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것은 바로 淫詩說 주장이다.

『모시정전』에서는 『시경』 대부분의 시편을 정치 풍자의 내용을 담은 諷刺詩로 보았으며, 남녀 간의 애정을 노래한 것으로 보이는 시편에 대해서도 또한 정치 풍자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하지만 주희는 남녀 간의 애정을 노래한 시편에 대해 자신의 性情論 및 윤리도덕관을 바탕으로 하여 도덕성이 상실된 자가 스스로 지은 것으로 禮義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고 이를 ‘淫詩’라고 판정하였다. 주희

28) 『毛詩』 「大序」 “變風。發乎情，止乎禮義。發乎情，民之性也，止乎禮義，先王之澤也。”

가 음시설을 주장하게 된 근거로는 앞에서 살펴본 美刺說 부정, ‘變風止乎禮義’ 부정, ‘詩序子夏所作說’ 부정 등이 있으며, 또한 『論語』 「爲政」의 “孔子曰,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思無邪.”에서의 ‘思無邪’를 讀詩者의 경우로 이해한 것 등이 있다.<sup>29)</sup>

이상에서 언급한 反詩序說 및 淫詩說 등에 대해서 『시집전』, 『시서변설』, 『주자어류』, 『시전유설』에서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각 주해서의 성격을 변별해 보도록 하겠다.

### 1. 『詩集傳』

『시집전』에서는 詩序에 대한 부정, 淫詩說 주장, 美刺說 부정, ‘變風止乎禮義’에 대한 부정, ‘詩序子夏所作說’ 부정, 讀詩者의 ‘思無邪’ 등에 대한 직접적인 논설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각 시편에 대한 주석과 해설을 통해 이러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 몇 편에서 小序와 『시집전』의 해설을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邶風·靜女]

「小序」: 「靜女」는 시대를 풍자한 시이다. 衛나라 君主는 無道하고 夫人은 덕이 없었다.<sup>30)</sup>

『詩集傳』: 이것은 淫奔者가 만날 것을 기약한 시이다.<sup>31)</sup>

[鄘風·桑中]

「小序」: 「桑中」은 淫奔을 풍자한 시이다. 衛나라의 公室이 淫亂하여 男女가 서로 쫓아다녀 世族으로서 지위에 있는 자들까지도 서로 妻妾을 도둑질하여 아득하고 먼 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니, 정치가 散亂하고 백성들이 流離하여 그칠 수 없었다.<sup>32)</sup>

29) 이상은 李再薰, 앞의 논문, pp.149-322. 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30) 「小序」, “靜女, 刺時也, 衛君無道, 夫人無德.”

31) 『詩集傳』, “此淫奔期會之詩也.”

『詩集傳』: 衛나라의 풍속이 음란하여 세족으로 지위에 있는 자들이 서로 妻妾을 빼앗았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장차 沫땅에서 새삼을 캐면서 그리워하는 사람과 함께 서로 만나기를 약속하며 맞이하고 전송하기를 이와 같이 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sup>33)</sup>

[衛風·氓]

「小序」: 「氓」은 세속을 풍자한 시이다. 宣公의 때에 禮義가 사라지고 淫風이 크게 유행하니, 男女가 분별이 없어 마침내 서로 달려가고 유혹하였고 아름다운 容色이 쇠하면 다시 서로 버리고 등졌다. 혹은 곤궁해지면 그 配偶를 잃은 것을 스스로 후회하였다. 그러므로 그 일을 서술하고 풍자하였으니, 正道로 돌아오움을 찬미하고 음탕함을 풍자한 것이다.<sup>34)</sup>

『詩集傳』: 이것은 淫婦가 남자에게 버림받고 스스로 그 일을 서술하며, 그 회한의 뜻을 말한 것이다.<sup>35)</sup>

[衛風·木瓜]

「小序」: 「木瓜」는 齊나라 桓公을 찬미한 시이다. 衛나라가 오랑캐에게 패하여 나가 漕邑에 거처하고 있었는데, 齊나라 桓公이 구원하여 나라를 봉해주고 車馬와 器服을 보내주니 衛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厚히 보답하고자 하여 이 시를 지은 것이다.<sup>36)</sup>

『詩集傳』: 이것은 또한 남녀가 서로 선물하고 답례한 말인 듯하니, 靜女와 같은 부류이다.<sup>37)</sup>

- 
- 32) 「小序」, “桑中, 刺奔也. 衛之公室淫亂, 男女相奔, 至于世族在位相竊妻妾, 期於幽遠, 政散民流而不可止.”
- 33) 『詩集傳』, “衛俗淫亂, 世族在位, 相竊妻妾. 故此人自言, ‘將采唐於沫, 而與其所思之人, 相期會迎送, 如此也.’”
- 34) 「小序」, “氓, 刺時也. 宣公之時, 禮義消亡, 淫風大行, 男女無別, 遂相奔誘, 華落色衰, 復相棄背, 或乃困而自悔喪其妃耦. 故序其事以風焉, 美反正, 刺淫泆也.”
- 35) 『詩集傳』, “此淫婦爲人所棄, 而自敘其事, 以道其悔恨之意也.”
- 36) 「小序」, “木瓜, 美齊桓公也. 衛國有狄人之敗, 出處於漕, 齊桓公救而封之, 遺之車馬器服焉, 衛人思之, 欲厚報之, 而作是詩也.”
- 37) 『詩集傳』, “疑亦男女相贈答之辭, 如靜女之類.”

[鄭風·溱洧]

「小序」: 「溱洧」는 亂을 풍자한 시이다. 兵革이 그치지 않으니, 男女가 서로 버려 淫風이 크게 유행해서 바로잡을 수가 없었다.<sup>38)</sup>

『詩集傳』: 이 시는 淫奔者가 스스로 서술한 말이다.<sup>39)</sup>

여기서 볼 수 있듯이, 小序는 美刺說에 근본하여 시편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찬미 또는 풍자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주희는 淫奔者 혹은 버림 받은 여인을 시의 작자로 보았으며 그 내용 또한 남녀 간의 연애, 버림 받은 여인의 회한, 淫風의 유행 등을 담고 있다고 판정하고 있다.<sup>40)</sup>

「鄘風·桑中」의 경우에는 위에서 제시한 해석 외에도, 「樂記」에 이르길, ‘鄭나라와 衛나라의 음악은 亂世의 음악이니慢에 가깝고, 桑間과 濮上의 음악은 亡國의 음악이니 정치가 산만하고 백성이 흩어져서 뒷사람을 속이고 사사로움을 행하여 그치게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살펴보면 「桑間」이 바로 이 편이다.<sup>41)</sup>라고 하여, 『시경』의 한 편인 「桑中」편이 「樂記」에서 말하는 ‘桑間濮上之音’임을 밝히고 있다.

주희의 이러한 淫詩 주장은 “國風이 里巷歌謠의 작품에서 나온 것으로 이른바 남녀가 서로 더불어 읊고 노래하여 각각 그 情을 말한 것이다.”<sup>42)</sup>라는 국풍 민간가요설과도 상통하는 주장이다. 또한 주희는 國風은 里巷의 노래이며 邶風 이하의 變風의 경우 邪·正과 是·非의 내용

38) 「小序」, “溱洧, 刺亂也. 兵革不息, 男女相棄, 淫風大行, 莫之能救焉.”

39) 『詩集傳』, “此詩, 淫奔者自敘之詞.”

40) 이상에서 예로 제시한 몇 편은 주희가 淫詩라고 판정한 시편들 중 일부이다. 시경 305편 중에서 주희가 淫詩로 판정한 5편을 예로 제시한 것은 이 淫詩의 해석이 특히 小序와 다른 부분이기도 하며, 앞서 언급한 詩序에 대한 부정, 淫詩說 주장, 美刺說 부정, 毛詩 大序의 ‘變風止乎禮義’에 대한 부정, 詩序子夏所作說 부정, 讀詩者の ‘思無邪’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41) 『詩集傳』 「鄘風·桑中」, “樂記曰, 鄭衛之音, 亂世之音也, 比於慢矣, 桑間, 濮上之音, 亡國之音也. 其政散, 其民流, 誣上行私而不可止也. 按桑間卽此篇.”

42) 『詩集傳』 「序」, “凡詩之所謂風者, 多出於里巷歌謠之作, 所謂男女相與詠歌, 各言其情者也.”

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는데,<sup>43)</sup> 이것도 주희의 淫詩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요컨대, 『시집전』에서는 각 시편의 해석을 통해 漢·唐 시경학과 구별되는 주희의 反詩序說, 淫詩說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시집전』에는 이러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논설 형태의 문장은 적은 편인데, 이는 『시집전』의 체제가 각 시편의 注解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sup>44)</sup>

## 2. 『詩序辨說』

『詩序辨說』의 시편 해설 양상은 『시집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 몇 편의 예를 통해 『시집전』과 『시서변설』의 해설 양상을 비교해 보겠다.<sup>45)</sup>

[邶風·靜女]

『詩序辨說』: 이 小序는 시의 뜻과 전혀 같지 않다.<sup>46)</sup>

[鄘風·桑中]

『詩序辨說』: 이 시는 淫奔者가 스스로 지은 것이니, 小序의 首句에서 淫奔함을 풍자한 것이라고 한 것은 틀린 것이다.<sup>47)</sup>

43) 『詩集傳』 「序」, “是以, 二篇獨爲風詩之正經. 自邶以下, 則其國之治亂不同, 人之賢否亦異, 其所感而發者, 有邪正是非不齊, 而所謂先王之風者, 於此焉變矣.”

44) 『시집전』에는 反詩序說이나 淫詩說 등에 대한 직접적인 논설은 없지만, 『시집전』의 序文 및 주석을 통해 주희의 詩에 대한 인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序文의 내용을 통해, ‘詩의 발생, 詩教, 學詩法, 風·雅·頌의 내용과 성격’ 등을 언급하였으며, 「國風」의 「關雎」·「葛覃」·「螽斯」의 주석에서 ‘興者, 先言他物, 以引起所詠之詞也.’, ‘賦者, 敷陳其事而直言之者也.’, ‘比者, 以彼物比此物也.’ 등 賦·比·興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45) 아래의 각 시편에 대한 「小序」와 『詩集傳』의 해설은 ‘III-1 『詩集傳』’의 내용 참조.

46) 『詩序辨說』, “此序全然不似詩意.”

[衛風·氓]

『詩序辨說』: 이 시는 풍자시가 아니다. 宣公의 일은 고찰할 수 없으므로 「小序」의 ‘序其事’ 아래의 서술은 마땅하지 않다. 「小序」에서 ‘바름으로 돌아간 것을 찬미한 것이다.’라고 할 것은 이치가 더욱 없다.<sup>48)</sup>

[鄭風·溱洧]

『詩序辨說』: 鄭나라의 풍속이 음란하니 그 風聲과 氣習이 전해진 것이 이미 오래되었다. 兵革이 그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男女가 서로 버린 후에 그렇게 된 것이다.<sup>49)</sup>

이상을 통해, 『시집전』에 비해 『시서변설』에서 詩序의 美刺說에 바탕한 해설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시집전』에서는 시편의 내용 해설을 위주로 詩序와 다른 해석을 전개하였다면, 『시서변설』에서는 詩序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다음에서 『시집전』과 『시서변설』의 해석 양상을 몇 편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王風·丘中有麻」의 경우 『시집전』에서는 “부인이 더불어 사통하는 자를 바랐으나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마도 언덕 가운데 삼이 있는 곳에서 다시 그와 더불어 사통하는 자 있어 머물게 하는 듯한데, 어찌 그가 즐거이 오겠는가라고 의심한 것이다.”<sup>50)</sup>라고 하였다. 반면 『시서변설』에서는 “이 또한 淫奔者의 노래이다. … 그러므로 小序의 해석은 틀

47) 『詩序辨說』, “此詩乃淫奔者所自作, 序之首句以爲刺奔, 誤矣.”

48) 『詩序辨說』, “此非刺詩. 宣公未有考, 故序其事以下, 亦非是. 其曰美反正者, 尤無理.”

49) 『詩序辨說』, “鄭俗淫亂, 乃其風聲氣習, 流傳已久. 不爲兵革不息男女相棄而後然也.”

50) 『詩集傳』, “婦人望其所與私者而不來, 故疑丘中有麻之處, 復有與之私, 而留之者, 今安得其施施然而來乎.”

린 것이다.”<sup>51)</sup>라고 하여, 이 시가 淫詩이며 詩序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 「鄭風·遵大路」의 경우 『시집전』에서 “음란한 부인이 남자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자, 그가 떠나감에 그 소매를 덥씩 잡고 만류하면서 말하길 ‘그대는 나를 미워하여 떠나가지 말라. 그러므로 옛 정은 갑자기 끊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 또한 男女相說之詞이다.”<sup>52)</sup>라고 하였다. 반면 『시서변설』에서는 “이 또한 淫亂한 시이다. 小序의 해석은 틀렸다.”<sup>53)</sup>라고 해설하여, 역시 淫詩 판정 및 詩序說의 오류 지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시집전』에서는 시편의 내용 해설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시서변설』에서는 간략하면서도 직접적인 어조로 淫詩 판정 및 詩序에 대한 비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시집전』과 『시서변설』의 체제와 성격을 보아서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시집전』은 각 시편의 내용에 대한 해설을 위주로 한 것이며, 『시서변설』은 책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詩序에 대한 辨說’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 3. 『朱子語類』

여기에서는 『주자어류』 권80, 권81, 그리고 권23의 『論語』 「詩三百章」의 내용 검토를 통해, 『주자어류』에서 볼 수 있는 주희 시경론의 양상을 살펴보고 하겠다.

먼저, 詩序의 ‘美刺說’에 대한 주희의 견해를 담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51) 『詩序辨說』, “此亦淫奔者之詞. … 序亦誤矣.”

52) 『詩集傳』, “淫婦爲人所棄, 故於其去也, 攀其袪而留之曰, 子無惡我而不留, 故舊不可以遽絕也. … 亦男女相說之詞也.”

53) 『詩序辨說』, “此亦淫亂之詩, 序說誤矣.”

溫柔敦厚는 詩의 가르침이다. 편마다 모두 사람을 비판하고 풍자하게 하다면 어디에서 溫柔敦厚의 가르침을 얻겠는가?<sup>54)</sup>

詩序의 주된 입장은 『시경』에 수록된 시편이 모두 찬미와 풍자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인데, 주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희는 溫柔敦厚를 시의 가르침이라고 여겼으며, 詩序의 주장대로 『시경』이 비판과 풍자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溫柔敦厚의 가르침이 없을 것이라고 하며 詩序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주희의 詩序 美刺說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주자어류』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다.<sup>55)</sup>

『모시』 大序에서 언급한 ‘變風止乎禮義’에 대해서도 주희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大序에는 또한 未盡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發乎情, 止乎禮義’라는 구절은 단지 正風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지, 變風이 어찌 禮義에 그치는 것이 있는가?<sup>56)</sup>

變風의 「柏舟」와 같은 시를 ‘禮義에 그친다’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桑中」과 같은 편을 ‘禮義에 그친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하다.<sup>57)</sup>

54) 『朱子語類』 卷80 2條, “溫柔敦厚, 詩之教也. 使篇篇皆是譏刺人, 安得溫柔敦厚.”

55) ‘美刺說’을 부정하는 주희의 견해는 다음에서도 볼 수 있다.

『朱子語類』 卷80 37條, “詩小序全不可信. 如何定知是美刺那人? 詩人亦有意思偶然而作者. 又其序與詩全不相合.”

『朱子語類』 卷80 41條, “詩序多是後人妄意推想詩人之美刺, 非古人之所作也. 古人之詩雖存, 而意不可得. 序詩者妄誕其說, 但疑見其人如此, 便以爲是詩之美刺者, 必若人也.”

『朱子語類』 卷80 44條, “鄭漁仲謂詩小序只是後人將史傳 去揀, 并看諡, 卻附會作小序美刺.”

56) 『朱子語類』 卷80 28條, “大序亦有未盡. 如發乎情止乎禮義, 又只是說正詩, 變風何嘗止乎禮義?”

57) 『朱子語類』 卷80 29條, “如變風柏舟等詩, 謂之止乎禮義, 可也. 桑中諸篇曰止乎禮義, 則不可.”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주희는 變風이 모두 禮義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大序의 ‘變風止乎禮義’는 周南과 召南의 正風에 해당하는 것이며, 變風에는 「柏舟」와 같이 禮義의 내용을 담은 것이 있지만, 「桑中」과 같이 禮義와 상관없는 男女相悅之詞 즉 淫詩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sup>58)</sup>

詩序의 작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주희는 衛宏 등 漢代의 여러 사람들이 지은 것이라고 하여 詩序의 가치를 폄하하였다. 다음은 ‘詩序子夏所作說’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직접 드러낸 것이다.

小序는 漢儒가 지은 것으로 믿을만한 곳이 매우 적다. 大序는 좋은 곳이 많지만 또한 사람의 뜻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sup>59)</sup>

詩 大序는 단지 후대 사람이 지은 것으로 여기에는 잘못된 구절이 있다.<sup>60)</sup>

詩序는 『東漢·儒林傳』에서 분명히 衛宏의 作이라고 하였다. 후대로 올수록 經意가 분명치 않게 된 것은 모두 衛宏에 의한 것이다. 또 내가 보건대, 衛宏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여러 사람이 함께 작성한 것이다. 그러니 말할수록 더욱 영성해지게 된 것이다.<sup>61)</sup>

『시경』은 春秋時代를 전후한 때 노래인데, 한참 후대인 漢代의 衛宏

- 58) 大序의 ‘變風止乎禮義’을 부정하는 주희의 견해는 다음에서도 볼 수 있다.  
『朱子語類』 卷80 13條, “蓋所謂序者, 類多世儒之誤, 不解詩人本意處甚多. 且如‘止乎禮義’, 果能止禮義否? 桑中之詩, 禮義在何處?”  
『朱子語類』 卷80 30條, “止乎禮義, 如泉水載馳固止乎禮義, 如桑中有甚禮義? 大序只是揀好底說, 亦未盡.”
- 59) 『朱子語類』 卷80 10條, “小序漢儒所作, 有可信處絕少. 大序好處多, 然亦有不滿人意處.”
- 60) 『朱子語類』 卷80 26條, “詩大序亦只是後人作, 其間有病句.”
- 61) 『朱子語類』 卷80 36條, “詩序, 東漢儒林傳分明說道是衛宏作. 後來經意不明, 都是被他壞了. 某又看得亦不是衛宏一手作, 多是兩三手合成一序, 愈說愈疏.”

이 序를 썼다는 것, 게다가 이것도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견해는 『모시정전』 해석의 근간인 詩序의 해석에 대한 전면적 부인이라고 할 수 있다.<sup>62)</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희는 美刺說, 變風止乎禮義, 詩序子夏所作說 등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反詩序說 주장의 근거가 된다. 아래에서는 주희의 反詩序說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을 예시해 보도록 하겠다.

詩序는 실로 믿을 것이 못된다. 예전에 鄭漁仲의 『詩辨妄』을 보았는데 힘써 詩序를 비판하였으니 그 언어가 매우 심하였으며, 촌 구석의 망령된 사람이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이 말을 의심했지만 나중에 한 두 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史記』와 『國語』 등에 근거한 후에야 詩序가 과연 믿을 것이 못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sup>63)</sup>

주희는 鄭樵漁仲은 그의 자[의 『詩辨妄』의 영향을 받고, 또 『시경』 시편의 내용과 『史記』·『國語』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서 詩序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주희의 입장은 『주자어류』의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는데,<sup>64)</sup> 특히 「桑中」·「子衿」·「有女同車」 등

62) ‘詩序子夏所作說’을 부정하는 주희의 견해는 다음에서도 볼 수 있다.

『朱子語類』 卷80 34條, “序出於漢儒, 反亂詩本意.”

『朱子語類』 卷80 43條, “某自二十歲時讀詩, 便覺小序無意義. 及去了小序, 只玩味詩詞, 卻又覺得道理貫徹. 當初亦嘗質問諸鄉先生, 皆云, 序不可廢, 而某之疑終不能釋. 後到三十歲, 斷然知小序之出於漢儒所作, 其爲繆戾, 有不可勝言.”

63) 『朱子語類』 卷80 40條, “詩序實不足信. 向見鄭漁仲有詩辨妄, 力詆詩序, 其間言語太甚, 以爲皆是村野妄人所作. 始亦疑之, 後來子細看一兩篇, 因質之史記國語, 然後知詩序之果不足信.”

64) 『朱子語類』 卷80 35條, “詩序作, 而觀詩者不知詩意!”

『朱子語類』 卷80 38條, “小序極有難曉處, 多是附會. 如魚藻詩見有“王在鎬”之言, 便以爲君子思古之武王. 似此類甚多.”

『朱子語類』 卷80 42條, “小序如碩人定之方中等, 見於左傳者, 自可無疑. 若其他刺詩無所據, 多是世儒將他謚號不美者, 揆就立名爾.”

주희가 淫詩로 지칭한 시편에 대한 해설에서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sup>65)</sup>

詩序의 견해에 반대하게 된다면, 『시경』 중에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보이는 시편에 대한 해석 또한 毛鄭과 달라지게 된다. 여기에서는 『論語』 「爲政」의 “孔子曰,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思無邪.”에서의 ‘思無邪’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관건이 되는데,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주희는 ‘思無邪’를 讀詩者의 경우로 이해하고 있다.

思無邪는 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思無邪하게 하는 것이다. 삼백편의 시를 읽으면서 선한 것을 법으로 삼고 악한 것은 경계로 삼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思無邪하게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시를 지은 자가 思無邪하다면, 「桑中」과 「溱洧」와 같은 시편의 내용이 과연 사악함이 없다고 하겠는가? 나는 『시집전』에서 小序를 제거하고 이것을 漢儒가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桑中」과 「溱洧」 등과 같은 시는 모두 淫奔한 사람이 지은 것이지, 시인이 이것을 지어서 그 사람을 풍자한 것은 아니다. 성인이 그것을 보존하여 풍속이 이와 같이 좋지 않음을 보이셨으며, 이 시를 남겨 두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여기고 경계로 삼게 한 것이다.<sup>66)</sup>

주희는 시를 읽는 사람이 『시경』의 내용을 보고서 善한 것은 法으로 삼고 惡한 것은 警戒로 삼는다고 하였다. 즉 ‘시 삼백 편을 한 마디로 요약했을 때 사악함이 없다’는 것은 시편의 내용에 사악한 것이 없다는

65) 『朱子語類』 卷80 39條, “歷言小序大無義理, 皆是後人杜撰, … 其他變風諸詩, 未必是刺者皆以爲刺; 未必是言此人, 必傳會以爲此人. 桑中之詩放蕩留連, 止是淫者相戲之辭; 豈有刺人之惡, 而反自陷於流蕩之中! 子衿詞意輕儇, 亦豈刺學校之辭! 有女同車等, 皆以爲刺忽而作. 鄭忽不娶齊女, 其初亦是好底意思, 但見後來失國, 便將許多詩盡爲刺忽而作. 考之於忽, 所謂淫昏暴虐之類, 皆無其實. 至遂目爲狡童, 豈詩人愛君之意? 況其所以失國, 正坐柔懦闕疏, 亦何狡之有!”

66) 『朱子語類』 卷23 27條, “思無邪, 乃是要使讀詩人“思無邪”耳. 讀三百篇詩, 善爲可法, 惡爲可戒, 故使人“思無邪”也. 若以爲作詩者“思無邪”, 則桑中溱洧之詩, 果無邪耶? 某詩傳去小序, 以爲此漢儒所作. 如桑中溱洧之類, 皆是淫奔之人所作, 非詩人作此以譏刺其人也. 聖人存之, 以見風俗如此不好. 至於做出此詩來, 使讀者有所愧恥而以爲戒耳.”

것이 아니라, 시편의 내용에 淫奔함과 사악함 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읽는 독자가 그것을 경계함으로 삼아 思無邪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讀詩者의 思無邪 주장은 『주자어류』 권80 뿐 아니라, 『논어』의 「시삼백장」에 대한 부분인 권23에서도 다수 나타난다.<sup>67)</sup>

‘思無邪’를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시경』의 시편 중에는 禮義에 어긋난 내용이 수록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즉 주희는 남녀 간의 애정을 노래한 시편에 대해 毛鄭에서 정치 풍자의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한 것과 달리 淫詩라고 지칭하였던 것이다. 다음에서 이러한 주희의 주장을 볼 수 있다.

67) 『朱子語類』 卷23 23條, “思無邪一句, 便當得三百篇之義了. 三百篇之義, 大概只要使人思無邪.”

『朱子語類』 卷23 25條, “若言作詩者思無邪, 則其間有邪底多. 蓋詩之功用, 能使人無邪也.”

『朱子語類』 卷23 26條, “非言作詩之人‘思無邪’也. 蓋謂三百篇之詩, 所美者皆可以爲法, 而所刺者皆可以爲戒, 讀之者‘思無邪’耳. 作之者非一人, 安能‘思無邪’乎?”

『朱子語類』 卷23 29條, “詩之意不一, 求其切於大體者, 惟‘思無邪’足以當之, 非是謂作者皆無邪心也. 爲此說者, 乃主張小序之過. 詩三百篇, 大抵好事足以勸, 惡事足以戒. … 如桑中等詩, 若以爲刺, 則是挾人之陰私而形之於詩, 賢人豈宜爲此? … 詩有止乎禮義者, 亦有不止乎禮義者.”

『朱子語類』 卷23 31條, “詩有善有惡, 頭面最多, 而惟‘思無邪’一句足以該之. 上至於聖人, 下至於淫奔之事, 聖人皆存之者, 所以欲使讀者知所懲勸. 其言‘思無邪’者, 以其有邪也.”

『朱子語類』 卷23 35條, “淫奔之詩固邪矣. 然反之, 則非邪也. 故某說, 其善者可以感發人之善心, 惡者可以懲創人之逸志.”

『朱子語類』 卷80 95條, “如詩中所言有善有惡, 聖人兩存之, 善可勸, 惡可戒.”

『朱子語類』 卷23 50條, “前輩多就詩人上說‘思無邪’, ‘發乎情, 止乎禮義’. 某疑不然. 不知教詩人如何得‘思無邪’. 如文王之詩, 稱頌盛德盛美處, 皆吾所當法; 如言邪僻失道之人, 皆吾所當戒; 是使讀詩者求無邪思.”

『朱子語類』 卷23 56條, “思無邪, 如正風雅頌等詩, 可以起人善心. 如變風等詩, 極有不好者, 可以使人知戒懼不敢做. … 今使人讀好底詩, 固是知勸; 若讀不好底詩, 便悚然戒懼, 知得此心本不欲如此者, 是此心之失. 所以讀詩者, 使人心無邪也, 此是詩之功用如此.”

變風에는 淫亂한 내용을 담은 시가 많이 있으니, 班固가 ‘男女가 서로 더불어 노래하면서 그 傷함을 말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聖人은 이것을 보존하여 윗사람이 가르침을 잃으면 백성이 情을 움직이게 되며 그 폐해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됨을 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詩可以觀’이라고 한 것이다.<sup>68)</sup>

주희는 變風에 음란한 내용을 담은 시가 있으며, 특히 鄭風과 衛風에 이러한 淫詩가 많이 있다고 주장하였다.<sup>69)</sup> 이러한 淫詩 주장은 앞서 살펴본 몇 가지 설에 대한 주희의 입장에 바탕을 두고 제시된 것이다.<sup>70)</sup>

이상에서 『주자어류』에서 볼 수 있는 주희 시경론 각론에 대한 해설 양상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시집전』 및 『시서변설』과 비교하여 정리하자면, 주희의 反詩序說 및 淫詩說 등의 주장은 『시집전』이나 『시서변설』에 비해 『주자어류』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본 논문의 본문 및 각주에서 인용한 『주자어류』 조목 가운데 60세 이상의 기록이 2/3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주희가 58세에 『시집전』을 완성할 즈음 및 그 이후에 反詩序說 및 淫詩說 등의 주장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 68) 『朱子語類』 卷80 12條, “若變風, 又多是淫亂之詩, 故班固言‘男女相與歌詠以言其傷’, 是也. 聖人存此, 亦以見上失其教, 則民欲動情勝, 其弊至此, 故曰‘詩可以觀’也.”
- 69) 『朱子語類』 卷80 27條, “鄭聲淫, 所以鄭詩多是淫佚之辭, 狡童將仲子之類是也. 今喚做忽與祭仲, 與詩辭全不相似. 這箇只似而今閑潑曲子.”  
『朱子語類』 卷80 41條, “鄭衛詩多是淫奔之詩. 鄭詩如將仲子以下, 皆鄙俚之言, 只是一時男女淫奔相誘之語. 如桑中之詩云: ‘衆散民流, 而不可止.’ 故樂記云: ‘桑間濮上之音, 亡國之音也! 其衆散, 其民流, 誣上行私而不可止也.’ 鄭詩自緇衣之外, 亦皆鄙俚, 如‘采蕭’‘采艾’‘青衿’之類是也. 故夫子‘放鄭聲’. 如抑之詩, 非詩人作以刺君, 乃武公爲之以自警. 又有稱‘小子’之言, 此必非臣下告君之語, 乃自謂之言, 無疑也.”
- 70) 앞에서 주희의 시경론 각론에 해당하는 여러 주장이 『주자어류』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것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각각의 항목으로 분류할 만한 성질이 아닌 것이 많다. 다만 본고에서 각 說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기 위해 편의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을 밝혀둔다.

## 4. 『詩傳遺說』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詩傳遺說』 가운데, 특히 卷2 「序辨」에서 주희의 反詩序說 및 淫詩說의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다음에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저 小序는 모두 후인의 억측에서 나온 것이니 만약 이 굴레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마침내 바름을 얻을 수 없다.<sup>71)</sup>

이는 小序가 후인이 지은 것으로 믿을만한 것이 못 된다는 주희의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晦庵集』 권34 「答呂伯恭」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聖인이 가려서 기록함에 그 좋은 것을 취한 것은 법으로 삼은 것이고, 그 못한 것을 보존한 것은 경계로 삼은 것이니, 가르침이 아닌 것이 없다.<sup>72)</sup>

이 부분 또한 『晦庵集』 권34 「答呂伯恭」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시경』에 淫詩와 같은 부도덕한 내용이 실리게 된 것에 대한 이유를 밝힌 것으로 讀詩者의 ‘思無邪’의 관점에서 언급한 것이다.<sup>73)</sup>

71) 『詩傳遺說』 卷2, 「序辨」, “大抵, 小序盡出後人臆度, 若不脫此窠臼, 終無緣得正當也.”

72) 『詩傳遺說』 卷2, 「序辨」, “聖人刪錄, 取其善者, 以爲法, 存其惡者, 以爲戒, 無非教者.”

73) 『詩傳遺說』 卷2, 「序辨」에서도 “孔子之稱思無邪也, 以爲詩三百篇勸善懲惡. 雖其要歸不出於正, 然未有若此言之約且盡者耳, 非以作詩之人所思皆無邪也. 今必曰彼以無邪之思, 鋪陳淫亂之事, 而閔惜懲創之意, 自見於言外, 則曷若曰彼雖以有邪之思作之, 而我以無邪之思讀之, 則彼之自狀其醜者, 乃所以爲吾警懼懲創之資邪.”라고 하여, 讀詩者의 ‘思無邪’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晦庵集』 卷70 「讀呂氏詩託桑中篇」의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鄭聲이 음란한데도 聖인이 그것을 보존한 것은 그 풍속을 알고자 하고 또 경계를 보이고자 한 것이니 이른바 ‘詩可以觀’이다. 어찌 그 시가 선한 것이겠는가. 伯恭이 이르기를 시는 모두 賢者가 지은 것으로 그 일을 직접 펼쳐서 풍자를 보인 것이라 하였다. 내가 일찍이 伯恭에게 묻기를 伯恭과 같은 賢者가 이러한 시를 즐겨 쓰겠는가? 또한 만일 이러한 시를 써서 다른 사람을 풍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시골에 있다면 한 시골의 어지러움이 되고 한 고을에 있다면 한 고을이 악하게 되는 바이니 어찌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 大序의 ‘止乎禮義’라는 말은 또한 의심스러우며, 나머지 小序도 더욱 믿을 수 없다.<sup>74)</sup>

이것은 앞의 인용문과 같은 논조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시의 효용으로 ‘可以觀’<sup>75)</sup> 즉 시를 통해 각국의 풍속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大序와 小序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 또한 『晦庵集』 권34 「答呂伯恭」의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이 밖에도 『시전유설』에는 주희 시경론의 주요 내용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II장에서 살펴본 朱鑑이 쓴 『시전유설』 「自序」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시경』 관련 기록을 모아 『시집전』의 내용을 보충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위해 주감은 『시집전』 외에 주로 주희의 문집 『晦庵集』과 주희와 그 門人들의 問答 기록인 『朱子語類』<sup>76)</sup>의 내용을 모아서 이 책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시전유설』은 『주자어류』 등에 보이는 주희 시경론과 별개의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니지만, 문집과 어록 등에 보이는 주희 시경론 관련 자료를 집성하였

74) 『詩傳遺說』 卷2, 「序辨」, “鄭聲淫, 聖人存之, 欲以知其風俗, 且以示戒. 所謂詩可以觀者也. 豈以其詩爲善哉. 伯恭謂詩皆賢者所作, 直陳其事, 所以示譏刺. 熹嘗問伯恭, 如伯恭是賢者, 肯作此等詩否. 且如今人有作詩譏刺人者, 在一鄉爲一鄉之擾, 在一州爲一州所惡, 安得謂之好人. … 大序止乎禮義之言, 亦可疑, 其餘小序尤不可信.”

75) 『論語』 「陽貨」,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76) 예를 들면, 『시전유설』에는 『朱子語類』 卷80 36條 “詩序東漢儒林傳分明說道是衛宏作…”, 卷80 37條 “詩小序全不可信…”, 卷80 40條 “詩序實不足信…”, 卷80 72條 “學者當興於詩, 須先去了小序…” 등 다수의 『주자어류』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다는 점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 IV. 結論

본론에서는 주희가 직접 저술한 『詩集傳』과 『詩序辨說』, 주희와 그의 門人들간의 問答 기록인 『朱子語類』의 『시경』 관련 부분, 주희의 손자 朱鑑이 편찬한 『詩傳遺說』 등 주희 시경학 연구의 주요 자료가 되는 4종의 注解書에 대한 비교 검토를 진행하였다. II장에서는 각 책의 편찬 시기, 저술 취지, 내용 구성 등의 概況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III장에서는 시경론 各論에 대한 해설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詩集傳』은 주희의 『시경』 주해서의 대표적인 것으로, 漢·唐 舊說을 비롯하여 특히 宋朝 諸家の 說을 두루 수용하여 宋學 『시경』 연구의 집대성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는 ‘주희가 『시집전』에서 宋朝 학자 21명의 214조목을 인용하면서 注解를 하였고, 또 宋 이전의 漢·唐 舊說도 두루 인용하였다.’고 밝힌 耿紀平의 연구<sup>77)</sup>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희는 경전 해석에 있어서 義理와 訓詁를 동시에 중시하였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 『시경』 주해에 있어서도 먼저 詩句에 대한 훈고를 진행한 후에 각 시편의 의미를 풀이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詩經觀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시집전』에서는 자신의 시경론을 논설 형태로 직접 제시한 부분이 적은 편인데, 이는 『주자어류』나 『시전유설』과 구분되는 점이다.

『詩序辨說』은 책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로 詩序의 문제점을 논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주희는 『시서변설』의 序文에서, 詩序를 經文에서 분리시켜 원래의 모습인 별도의 기록으로 모으고 그 詩序의 得失을 논하며 그것의 오류를 변증하여, 詩의 義理를 해치며 聖經의 본

77) 주석 11), 12) 참조.

뜻을 어지럽히는 詩序의 폐해를 막고자 이 책을 지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주희의 詩序說 부정의 입장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시서변설』에는 주희의 詩序 관련 견해가 집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朱子語類』의 권80, 권81, 권23에는 주희 시경론의 다양한 내용에 대한 주희와 그의 門人간의 問答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각 시편에 대한 해설 뿐 아니라, 美刺說 부정, ‘變風止乎禮義’에 대한 부정, 詩序子夏所作說 부정, 讀詩者의 ‘思無邪’ 주장, 反詩序說, 淫詩說 등 주희 시경론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다양하고 상세한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주자어류』에는 『시집전』이나 『시서변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주희 晚年 定論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詩傳遺說』은 주희의 손자 朱鑑이 『晦庵集』과 『朱子語類』 등에 보이는 주희 시경론 관련 자료를 발췌하여 수록한 것으로, 『시집전』이 이미 판각되어 배포된 이후에 진행된 일종의 후속 작업이라고 하겠다. 『시전유설』은 『시집전』에 누락된 주희 시경론의 내용을 집성함으로써 『시집전』의 내용을 보충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주희 시경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反詩序說과 淫詩說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4종의 注解書를 검토해 보면, 주희의 이러한 관점은 『시집전』에 비해 후대의 저술에서 더욱 확고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시집전』이 각 시편에 대한 주해를 위주로 한 것으로 논설적 내용이 많이 실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시서변설』과 『주자어류』 등에 反詩序說과 淫詩說이 더욱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주희의 『시경』 주해서 4종을 비교·검토하여 각 책의 특징과 성격을 밝히는 데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였다. 이에 따라 주희 시경론 각론에 대한 세밀한 분석, 『시경』 각 시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양상 등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하였다. 이는 향후에 수행할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參考 文獻>

[漢]毛公·鄭玄,『毛詩鄭箋』

[唐]孔穎達 撰,『毛詩正義』

[宋]朱熹,『論語集注』

[宋]朱熹,『詩集傳』

[宋]朱熹,『詩序辨說』

[宋]朱熹,『晦庵集』

[宋]朱鑑,『詩傳遺說』

[宋]黎靖德 編,『朱子語類』

[清]王懋竑,『朱熹年譜』

[清]紀昀 總纂,『四庫全書總目提要』

金時俊,「毛詩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0.

楊沅錫,「研經齋 成海應의 詩經學 研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0.

李再薰,「朱子 詩經學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耿紀平,「朱熹詩集傳徵引宋人詩說考論」,『第六屆詩經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中國詩經學會, 2004.

羅英俠,「集大成: 朱熹詩集傳的訓釋特色」,『中州學刊』 2007年第4期(總第160期), 2007.

檀作文,『朱熹詩經學研究』,北京: 學苑出版社, 2003.

戴 維,『詩經研究史』,長沙: 湖南教育出版社, 2001.

徐鼎一,「朱子詩集傳淺說」,『北京大學學報國內訪問學者進修教師論文專刊』, 2003.

邵炳軍,「朱熹詩集傳對毛序的批判與繼承: 朱熹詩集傳與南宋詩學革新精神研究之一」,『第四屆宋代文學國際研討會論文集』,宋代文學學會, 2005.

劉毓慶,『歷代詩經著述考』,北京: 中華書局, 2002.

李曉東,「經學與宋明理學」,『中國經學史論文選集』,臺北: 文史哲出版社, 1992.

鄭艾民,「朱熹與朱子語類」,『朱子語類』,北京: 中華書局, 1986.

- 趙沛霖, 『詩經研究反思』, 天津: 天津教育出版社, 1989.
- 朱子赤, 『詩經關鍵問題異議的求徵』,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4.
- 馮浩菲, 『歷代詩經論說述評』, 北京: 中華書局, 2003.
- 夏傳才·董治安 主編, 『詩經要籍提要』, 北京: 學苑出版社, 2003.
- 夏傳才, 『詩經研究史概要(增注本)』,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007.
- 黃忠慎, 『南宋三家詩經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8.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Zhu-xi's interpretative books of The Book of Odes*  
- Focused on 『Shijizhuan』, 『Shixubianshuo』, 『Zhuziyulei』, 『Shizhuanyishuo』  
/ Yang Won Seok\*78)

It can be said that there are following four kinds of literature related to study on Zhuxi(朱熹)'s *The Book of Odes*. That is the literature includes *Shijizhuan*(詩集傳) and *Shixubianshuo*(詩序辨說) directly written by Zhuxi; a portion related to *The Book of Odes* of *Zhuziyulei*(朱子語類), records of questions and answers between Zhuxi and his disciples; and *Shizhuanyishuo*(詩傳遺說) compiled by Zhujian(朱鑑), a grandson of Zhuxi. In this paper,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s of each book were analyzed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above-mentioned four kinds of notes and interpretative books. To summarize the review result, it is as follows.

*Shijizhuan* is a typical book among commentaries on Zhuxi's *The Book of Odes* and evaluated to have compiled the study results on Song(宋)'s science *The Book of Odes*. This book mainly consists of notes and comments on each poetry.

The main contents of *Shixubianshuo* are arguments against problems of Shixu(詩序). It discussed about Daxu(大序) and Xiaoxu(小序) corresponding to each poetry.

In Volume 80, Volume 81 and Volume 23, which are portions related to *Zhuziyulei's The Book of Odes*, the key facts of the theory of Zhuxi's *The Book of Odes* are contained. These books include diverse and detailed materials on main contents of the theory of Zhuxi's *The Book of Odes* as well as comments

---

\*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BK21 The Education and Research Group for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yang1st@korea.ac.kr

of each poetry.

*Shizhuanyishuo* was compiled to supplement the contents of *Shijizhuan*. It was compiled by extracting and writing down materials related to the theory of Zhuxi's *The Book of Odes* which can be found in *Hui'anji*(晦庵集), *Zhuziyulei*, etc. in addition to *Shijizhuan*.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collected the contents of the theory of Zhuxi's *The Book of Odes* which can be contained in various books.

【Key words】 Zhuxi(朱熹), *The Book of Odes*(詩經), *Shijizhuan*(詩集傳),  
*Shixubianshuo*(詩序辨說), *Zhuziyulei*(朱子語類),  
*Shizhuanyishuo*(詩傳遺說)

투고일 : 11월 9일, 심사일 : 11월 17일, 게재확정일 : 12월 5일